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6면
남원에 '드론활용센터' 구축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음 3월 5일) 제275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범도민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 운영

도, 급속한 지역확산 따라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진단검사 · 수칙 준수 · 예방접종 등 홍보 강화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총력 대응에 나선다. 〈관련기사 4면〉

도는 최근 지역사회 내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져 4차 대유행 발생이 예상된다며, 15일부터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코로나19 범도민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에 대한 상설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전방위 홍보에 나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 진단검사 강화, 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 등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 범도민 홍보를 강화한다.

또,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4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에 전북도 특사경을 활용해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고정 배치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지자체·경찰 관계기관 합동점검 강화해 방역체계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방역관리자 역할 수행, 동시 이용가능 인원 준수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중점관리시설 22시 영업 운영 여부, ▲이용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이용 여부,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실질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형식적인 단속을 탈피해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집합금지, 과태료, 고발)한다.

또한. 방역지침 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 협조를 받아 신원을 확인한 후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해 도민들의 경각심 고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도 인증 · 창업기업 보증지원 확대

전북도-SGI서울보증 협약

전북도는 SGI서울보증과 15일 전북도 인증·창업기업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유광열 SGI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며, 도내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지원대상은 '유망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 '돋움기업' 등 인증기업 120여개 기업과 '전북도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의 창업기업 60여 개 기업이 해당한다. 또한, 2021년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4개 사업 및 유망·우수중소기업 등 신규 선정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도는 협약에 따라 SGI서울보증과 함께 인증기업과 창업기업으로 구분해 도내 중소기업에 맞춤형 보증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군 중 유망·우수중소기업 등 인증기업군에 대해서는 계약·차액·선금급·하자·상품판매대금 등 이행보증보험료를 10% 할인하며, 기업당 보증한도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또, 창업기업군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및 계약수주에 필요한 인허가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을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 당 2년간 5억 원의 특별 신용한도를 부여한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3,000만원을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유호상 기자

전주시는 15일 삼천도서관에서 김승수 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책이 곧 삶… '책의 도시 전주' 선포

시, 다시 문 연 삼천도서관 포함

특화 도서관 5곳 릴레이 개관

전주시가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책의 도시로 나아간다. 〈관련기사 16면〉

첫마중길과 학산, 팔복예술공장 등 지역 곳곳에는 특색 있는 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삼천도서관은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샘솟는 창의적인 책 놀이터로 변신한다.

시는 15일 삼천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김수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이종희 국립무형유산원장, 홍남권 전주시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공·사립도서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 비전 선포식과 개방형 창의도서관 재개관식을 가졌다. 이어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완산도서관 자작자작 책공작소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등 특화도서관 5곳의 릴레이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서 김승수 시장은 ▲삶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 ▲책을 읽고 쓰고 만드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독서문화 ▲가보고 싶은 책여행도시 ▲전주가 기억하는 동문 책의 거리 등 5개 중점방향을 골자로 한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선포식 이후에는 최근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다시 문을 연 삼천도서관에서 개관식이 이어졌다. 어린이 책놀이터 '맹꽁이네'와 유아 책 놀이터 '반딧불이네', 북큐레이션 '책뜰', 휴식공간 '쉼뜰', 문화공간 '정글짐 소극장' 등 기존의 정숙이 강조되는 도서관의 틀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대변신했다.

두 번째 개관식은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독서를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평화동 맏내제 인근에 조성된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에서 이어졌다. 김용택·안도현 시인 등 우리나라 대표 시인들의 저자 친필 사인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외국어 원서 시집이 비치돼 있으며 사랑과 이별, 인생 등 주제별 코너도 마련됐다.

책을 읽고, 쓰고, 만드는 독립출판 전문도서관으로 새 단장 중인 완산도서관 3층에는 자작자작 책 공작소가 개관했다. ▲작가의 방 ▲일상작가방 ▲시민작가광장 등 다른 도서관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성화된 공간으로 구축됐다. 특히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북카페 분위기의 인테리어도 돋보인다.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는 여행자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여행 추천도서도 열람할 수 있는 이색도서관이다. 길쭉한 형태의 빨간 컨테이너 박스에는 여행자 라운지 '첫마중'과 아트북 전시공간, 동네책방 추천도서 전시공간 등이 갖춰졌다. 여행자 라운지에서는 관광안내 서비스와 여행서적 열람, 짐 보관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방치된 폐산업시설을 재생해 탄생한 팔복예술공장에는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이 운영된다. 여기서는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1820년대 빈티지 팝업부터 2000년대 현대 팝업까지 80여 개의 팝업북을 만나볼 수 있다.

향후에도 시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학동 예술마을에는 예술전문도서관을 구축하고, 아중호수에는 호수를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곳곳에 위치한 작은도서관과 동네책방·서점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전주 전역에 각양각색의 특화도서관이 생기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고, 쓰고, 만들어 책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삶을 바꿔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책 여행도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꽃심' 도서관과 책기둥도서관에 이어 시집도서관, 여행자도서관, 그림책도서관, 책 쓰는 도서관 등 기존 고정관념을 깨는 특화도서관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면서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삶이 다시 책이 되는 도시, 시민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에게도 사랑받는 인문관광의 도시가 되는 데 도서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취소를"

시도지사협, 강력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우리나라 등 인접국과 다시 협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5일 17개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 채택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해 12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주변 인접 국가와 함께 태평양 연안국가에 위협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2년 후에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일방적 결정은 주변 인접 국가는 물론, 태평양 연안국가와 지구촌 전체의 해양 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게는 해양 오염과 주민 건강 위협 문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기에 국제사회와 함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제안에 전국 시도지사가 적극 공감하면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와 안정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하진 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한다는 원칙하에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와 공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